2016년 불교학계 주요 행사는

불교학 지평 넓히는 토론 '다채'

새해 불교학계가 불교의 실용적인 요청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를 대거 마련한다. 그동안 이론에 치중됐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불교학이 새로운 학문분야와의 연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가 1월 30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개최하는 '불교학의 지형도와 방법론 탐구'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예술학' 각 분야로의 확장이 논의된다. 도업 스님을 비롯해 조명제, 고영섭, 송현주, 장재진 등 그동안 불교학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학자들이 학계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탄준 한국불교학회장은 "현재 한국불교학 연구에는 '전승의 불교학'과 '현대의 불교학' 방법론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승 불교학은 교판과 관법, 현대불교학은 이론과 실천에 얽매여 있다. 현대불교학의 장점을 살려 좀 더 넓은 해석의 지평을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인 간화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의 동계워크샵과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의 춘계세미나가 그 것이다.

불교학연구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한국 간화선의 미래'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전 학술세미나가 2인 발표로 간소화되고 오후부터 학자들의 난상 토론회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불교학회, 인문학 담론 개최
불학연구회, 간화선 비판적 고찰
효봉선사 50주기 선양 세미나도
통합디지털대장경 선보일 예정

불교학연구회 측은 "선문염송의 공안과 전통적인 간화선의 모습, 현대 진행되는 간화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 그 접점을 살펴보는 자리"라며 "지난해 가을 추계학술대회의 '수행과 호흡' 주제에 이어 간화선 수행법을 점검하고 그의 적용 범위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도 6월 경연세대에서 규봉종밀과 선의 역사 및 사상에 대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불교사상의 전개를 동아시아 범주에서 바라보는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1월 18일 동경대에서 '중관과 유식의 동아시아적 전개' 공동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금강대 측에서는 김성철, 차상엽, 정주희 교수 등이 나서며, 동경대 측에서는 찰스뮐러, 가토 고지로, 나카니시 도시히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특히 찰스 뮐러 교수가 '동아시아에서 중관과 유식의 해석에 대한 원효의 역할' 발표를 통해 원효 스님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근현대 고승들의 사상을 조명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진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9월 30일 서울 법련사에서 조계종 3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의 열반 50주기에 맞춰 선사상을 살피는 학술대회를 연다. 또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도 봉암 변월주 스님과 용성 스님의 관계를 조명하는 세미나를 10월 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도 상반기 중으로 청도 운문사와 함께 나한신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연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과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가 4년 동안 공동작업한 통합디지털대장경도 상반기내에 모습을 드러낸다. 불교학술원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한글대장경 DB 및 고려대장경 원문DB를 통합한 통합디지털대장경을 준비해왔다.

불교학술원 측은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함께 향후 활용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계, 논문심사 제도 개선 시작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제46호부터 '심사기피제' 도입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가 〈불교학연구〉 제46호부터 심사기피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심사기피제도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특정 심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피하고자 하는 심사자의 성명과 소속, 기피사유를 작성해 편집위원장 앞으로 메일을 보내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1인에 한해 심사자 선정에 반영한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논문심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권오민 경상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문/사/철〉에 '불교학 관련 논문심사 유감'이란 글을 통해 "논문심사가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리고는 있지만 때로 심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을 훈계하듯 지시하기도 한다"고 비판했으며 장재진 동명대 교수도 심사자의 자격과 논문투고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각 학회관계자들은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불교학연구회의 이번 조치는 학계에서 선도적인 조치로 평가 받는다. 불교



불교학연구회 온라인 논문심사 시스템

학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을 앞장서 도입했으며, 전자저널 또한 최초로 도입했다.

이런 노력 끝에 등재지 〈불교학연구〉가 불교학 분야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올랐고 2015년도엔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한편,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 제46호 원고를 모집 기한은 1월 29일까지다. 논문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120~150매까지로 150매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불교학연구 투고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ksbs.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성보, 이젠 인터넷으로 손쉽게 보세요"

문화재청,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통합서비스 실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기존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을 개선해 구랍 31일부터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3.0에 따른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문화유산학습관 △문화유산탐방관 △문화유산체험관으로 구성됐다.

특히 불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령 '국보122호 진전사지 석탑'을 검색하면 석탑 사진과 동영상, 석탑 디지털 도면과 그동안의 조사와 연구자료 등 정보와 콘텐츠가 한번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메뉴 구성을 단순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새로 추가된 '문화유산학습관' 기능은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이 문화유산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콘텐츠다.

어린이 · 청소년 등 교과과정을 반영한 교육콘텐츠를 비롯하여 3차원(3D) 시뮬레이션 등이 제공된다.

'문화유산탐방관'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문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통합 서비스 화면

화유산을 시간의 구애 없이 집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한국의 세계유산', '궁궐 · 왕릉', '건축 · 과학', '사상 · 신앙' 등 10개의 테마로 구성해 500여 편의 영상콘텐츠를 제공한다.

'문화유산체험관'을 방문하면 '문화재지킴이',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 · 서원' 등 문화유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 등 스마트폰을 통해 문화유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제8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개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박창환)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장충동 만해 NGO 센터에서 제8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 '산스크리트 집중강좌'를 개설한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강좌는 불교고전어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 학습을 통해 타 언어로 번역되기 이전의 생생한 의미에 접근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철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문법반을 맡고, 이영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가 강독반을 맡아 강연한다. (041)731-3628

노덕현 기자

티벳대장경역경원, 티벳어 무료 강좌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현대 티벳어 특강'을 실시한다. 티벳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강은 이지현 티벳대장경역경원 전임연구원이 티벳어 글자와 기초문법, 회화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2009년에 설립돼 티벳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벳어 한글표기안, 티벳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054)770-2893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학〉 제77집 원고 모집

불교교학 · 불교사학 · 불교응용 3개 분야…1월 10일 마감

한국불교학회(회장 권탄준)는 제77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마감은 1월 10일 오후 5시까지로 마감 시한 이후에는 원고를 받지 않는다.

국내 불교전문학술지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회지인 〈한국불교학〉은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한국불교학〉 77집에 게재할 원고를 3개 분과, 즉 불교교학 및 불교사학, 불교응용로 나눠 모집한다"며 "한국불교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불교학자들이 모집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고는 이메일(hanbulhak@daum.net)을 통해 접수받는다. 심사비 및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하여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010)8831-8525

노덕현 기자

지자체 대상 '문화재 夜行 프로그램' 공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가 집적 ·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접목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6 문화재 야행(夜行)'에 대한 사업공모를 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사업이다.

'역사를 품고 밤을 누비다'를 주제로 하는 2016년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은 지역에 소재하는 거점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 야간관람 프로그램 △문화재와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한 야간개방 프로그램 △야간 역사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야간공연 · 시연 프로그램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게 된다. 이와함께 야로, 야숙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2016년도 사업 선정을 위한 이번 공모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다. 문화재의 단순 공개 사업이나 문화재와 관계없는 관광 위주의 축제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